



### 📍 코 두개 달린 송아지 미국서 태어나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코가 두개인 송아지가 태어나 화제가 되고 있다.

시카고의 뉴스 전문 라디오인 WBBM은 위스콘신주 링컨 카운티의 메릴에 거주하는 마크 크롬홀츠 씨의 농장에서 5월 4일 코가 둘인 송아지 루시가 태어났다고 5월 11일 보도했다.

크롬홀츠는 “처음에는 외양간으로 옮길때까지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우유를 먹이려고 갔을 때 송아지의 코가 두개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루시는 정상적인 코 위치 위에 또 하나의 작은코가 있는데 크롬홀츠는 “우유를 마실 때 작은 코가 벌름 거리는 것을 보면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것 같다”고 밝혔으며, 사육 전문가인 스콧 그런드도 “이 송아지는 단지 코가 두개일 뿐이며 두 코 모두 정상적이다”고 말했다.

그런드는 “루시의 경우는 희귀한 기형으로 유전자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사육 전문가들은 이 같은 돌연 변이의 기록을 관리하고 있으며 비슷한 경우가 더 발생할 경우 중우의 관찰을 시작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크롬홀츠는 송아지 루시를 애완동물로 키울 것이며 가능하면 새끼도 낳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시카고>이경원 통신원(kwchrislee@yna.co.kr)

2007년 5월 12일

### 📍 NBA 악동 아테스트, ‘집도 잃고 개도 잃고’

미국프로농구(NBA)의 유명한 악동 론 아테스트(28, 새크라멘토 킹스)가 집과 아내에 이어 애완동물까지 빼앗기게 됐다고 AFP 통신 등 외신들이 4월 28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지역 동물 보호 관서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은 아테스트가 ‘삭스’라는 이름의 애완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등 학대했다는 혐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사육권 포기를 요구, 본인의 동의를 받아냈다.

이로써 올 2월 초 “185만 달러(한화 17억원)짜리 호화판 저택에 사는 아테스트가 정작 애완동물에게는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불거진 이번 사건은 두 달 만에 ‘삭스’가 새 주인을 찾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개를 빼앗긴 아테스트는 자신도 호화판 저택에서 쫓겨났다.

동물 학대 혐의로 말썽을 빚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3월 초 자신의 집에서 아내 김샤를 폭행한 뒤 증언 포기까지 종용했다는 4가지 혐의로 재판받을 때다.

당국은 아테스트에게 집에 돌아가지 말고 아내와 세 자녀로부터 100야드(91m) 이상 떨어지라는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5월 3일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이 나올 경우 최악 4년의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월 새크라멘토로 옮겨온 아테스트는 인디애나 페이스스에서 뛰던 2004년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 원정 경기에서 관중에게 주먹을 날려 73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500만 달러 부과라는 약물과 무관한 사건으로는 NBA 사상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은 선수로 잘 알려져 있다.

약동 짓과는 별개로 뛰어난 플레이어로 새크라멘토 주전 포워드 자리를 굳힌 아테스트는 지난 시즌부터 2008~2009 시즌까지 매년 700~800만 달러씩을 받는 내용의 다년계약을 맺고 있어 새 집과 새 애완견을 사들일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충원 기자(chungwon@yna.co.kr)

2007년 4월 28일



### 인수(人獸)공통전염병 브루셀라증 매년 급증

브루셀라증이 매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람과 동물이 모두 걸리는 인수(人獸)공통전염병인 브루셀라증은 주로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소와 접촉할 기회가 많은 가축농장이나 도축장 종사자, 수의사, 인공수정사, 실험실 근무자 등 특정 직업군에 발생하는 직업병의 일종으로 2000년에 제3군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됐다.

5월 1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4월 말 현재 브루셀라증 환자는 모두 38명으로 파악됐다.

브루셀라증 환자는 2002년 10월 경기도에서 살균 처리하지 않은 우유를 섭취 후 감염된 첫 환자가 확인된 이후 해마다 급증해 2003년 16명, 2004년 47명에 이어 2005년 158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2006년 들어서는 215명이 브루셀라증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 현황을 보면 경북, 경남, 전남, 충북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브루셀라증은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소의 태반이나 혈액, 대소변 등에 있던 병원균이 상처 난 피부나 결막을 통해 사람에게 전파된다.

또 멸균처리되지 않은 브루셀라균 오염 우유나 유제품을 먹어도 감염될 수 있다.

감염되면 2~4주, 때로는 수개월의 잠복기를 거쳐 불규칙한 두통, 발열, 오한, 전신통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며 치료시기를 놓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증상이 몇 년 동안 재발한다.

감염자 중 2% 이하는 심내막에 염증이 생겨 사망할 수도 있다.

브루셀라증 감염자는 주로 축산업 종사자들이다. 실제로 158명의 환자가 발생한 2005년의 경우 축산업자가 142명이었고, 수의사 15명, 기타 1명 등이었다.

하지만 비(非)축산 분야의 일반인이라고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

질병관리본부가 2002년부터 4년간 브루셀라증에 걸린 환자 223명을 분석한 결과, 축산업 관련 종사자가 아닌, 일반 기타 환자도 6명이나 됐기 때문이다.

브루셀라증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이들 기타 일반 환자의 직업은 사무직, 건축업, 기능공, 한약 판매자 등으로 다양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역학조사 결과 이들 기타 일반 환자들은 친척 집 등에서 소 분만이나 농장 일을 도와주거나 또는 결혼식장 피로연, 음식점 등에서 육회나 소의 생간을 섭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브루셀라증 환자가 이처럼 매년 늘고 있는 것은 브루셀라에 감염된 소들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는 브루셀라증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보호장비(보호장갑, 보호안경, 마스크, 보호복 등)을 반드시 착용하고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살균처리되지 않은 우유 등 유제품을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브루셀라증 전국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지난 4월 말부터 전국의 축산업자 5천750명, 수의사 287명, 인공수정사 324명 등 고위험 직업군 총 6천361명을 대상으로 역학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혈청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이 15명으로 전체 혈청유병률은 0.23%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의사들이 소 분만 작업 도중에 감염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덧붙였다.  
서한기 기자(shg@yna.co.kr)

2007년 5월 11일

### ▶ 부산 사상구 “애완동물 사체 대신 처리”

부산 사상구청은 일반 가정에서 발생한 애완동물 사체를 대신 처리해 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월 1일 밝혔다.

사상구청은 애완동물 사체 수거를 원하는 민원을 접수하면 24시간 이내에 기동청소반이 직접 가정을 방문, 사체를 수거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선별장에 보관하다 매립장으로 보내게 된다.

애완동물 사체는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전염병 등 2차 환경오염의 요인이 될 수 있고, 일반쓰레기 배출요일까지 가정에서 보관하기도 어려워 아무 곳이나 매립하거나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형편이다.

구청 관계자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동물 사체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나 실제 가정에서 동물 사체를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문의전화가 크게 늘고 있다”며 “우선 개와 고양이 사체 수거서비스를 실시한 뒤 주민반응이 좋으면 조류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희 기자(osh9981@yna.co.kr)

2007년 5월 1일

### ▶ 화재 위험서 주인 구한 ‘두비’

집에서 기르던 애완견이 화재 위험에 처한 사실을 모른 채 잠이 든 주인을 구한 영화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지난 5월 13일 오후 5시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다가구주택 2층에 사는 주지종(42)씨는 퇴근을 한 뒤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국을 끓이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당시 집에는 주씨 외에 1년여 동안 함께 생활하고 있는 두살배기 흰색 애완견 ‘두비’ 밖에 없었다.

주씨가 잠이 든지 50분 정도가 지난 5시50분께, 국은 완전히 줄어들었고 불은 냄비를 삼키기 시작했다.

냄비는 이미 새카맣게 타버렸고 순식간에 연기는 23㎡ 정도 되는 주씨의 집을 삼켜버렸다.

집에 불이 날 수도 있는 ‘일촉즉발(一觸即發)’의 상황이었다.

그러자 갑자기 두비는 급하게 주인의 배 위로 올라가 팔짝팔짝 뛰고 요란하게 짖어대며 주씨의 옷깃을 잡아당기는 등 주씨를 깨웠다.

두비덕분에 가까스로 잠에서 깬 주씨는 집이 온통 연기로 휩싸인 것을 보고 ‘화들짝’ 놀라 부랴부랴 창문을 연 뒤 소방서에 전화를 했다.

주씨는 “당시 눈을 떴을 때 집 안이 온통 연기로 뒤덮여 있었고 앞이 캄캄해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며 “119에 전화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당시 주씨는 의식을 잃지는 않았지만 연기를 너무 많이 들이마서 정신이 몽롱해져 있는 상태였다.

5분 뒤 주씨의 집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급히 주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고 주씨는 병원에서 산소호흡기 등을 이용해 치료를 받은 뒤 약 1시간 30분만에 병원에서 퇴원했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최강수(32) 소방교는 “주씨의 집에 도착해보니 주씨가 싱크대를 붙잡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주씨 옆에는 조그만 흰색 강아지 한마리만이 왔다갔다하고 있었다”며 “대부분의 화재에서 사람들이 질식사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강아지가 주씨를 깨워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주씨는 “지인으로부터 1년 전 두비를 선물받은 뒤 항상 한 방에서 함께 생활하며 가족과 같이 지냈다”며 “두비가 바로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하며 두비를 쓰다듬었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2007년 4월 17일

